

「萬德傳」과 關聯 漢詩가 지닌 地域文學的 價値

부영근*

차례

1. 머리말
2. 萬德 關聯 作品의 創作背景
3. 萬德 關聯 作品
 - 3.1. 傳으로 된 作品
 - 3.2. 漢詩로 된 作品
4. 萬德 關聯 作品의 意義
5. 맺음말

1. 머리말

문학은 문화의 한 흐름이다. 그리고 문학은 역사와 철학 등 모든 문화적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화적 영역이다. 또한 문학은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의 포괄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각 지역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단위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문학은 이러한 역사와 철학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

요새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소재 내지 장소 인물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전해지는

* 대구한의대 초빙교수, 영남대학교 강사

역사적 사건 설화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하여 콘텐츠¹⁾화 하려는 시도이다. 역사도 시대를 테마로 구성된 이야기이다.²⁾ 다만 그것의 소재가 사실에 기초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가지고 당시의 사관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문학 역시 특정한 감흥 소재 인물 장소 시대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문학적인 기술 능력이 가미된 고도의 이야기이다.

이제까지의 문학은 중앙 집중적인 소재를 콘텐츠화하여 구성되다보니 다양성이라는 흥미진진한 모습에서 벗어나 유행과 시대흐름에 순응하는 긍정적 측면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문학적 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집약적으로 발전시킨 공로는 있지만 전체를 아우른다는 기준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주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소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독특한 제주만이 가진 소재들은 문학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문인들에게 각색되어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 여러 가지 문체를 활용하여 표현되었다.

제주은 본토와 떨어져 있다는 격절성 기후와 풍토가 다른 점 그리고 조선조 오백년 동안 제주를 다녀간 유배객 관료 여행객 장사꾼 혹은 표류하다 어쩔 수 없이 孤島에 닿은 사람 등 어쨌든 수많은 스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문학을 전공한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본주의적 명제에 대한 문학적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문학의 새로운 모색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제주의 명승고적 산수자연 제주목 관아지를 포함한 관청의 부속 건물 방호소 등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있고 또 그것을 배경으

1) 콘텐츠라고 해야 하고 콘텐츠는 일본식 영어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하는 논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콘텐츠라고 하였다. 뜻은 이희승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논문 서적 문서 등의 내용, 내용의 목차'라고 되어 있다.

2)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로 한 문학적 작품들이 시대 인물을 초월해서 많이 남아 있다.³⁾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주를 알리는 스토리가 되어 트렌드로 작용할 수 있다.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문화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학적 유산들을 발굴 현재에 맞게 드러내어 현대적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성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⁴⁾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학의 향유 층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해 진다.

최근 들어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제주 지역은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있다. 주지하듯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기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가를 즐기려는 사회적 욕구가 팽배해지는 지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지방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주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문화적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선후기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흑독했던 기근을 여자의 몸으로 구원하여 수많은 제주 민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가 바로 만덕이다. 萬德에 대한 일화는 당시에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로써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고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었

3) 줄고,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소고」, 『영주어문』 제14집, 2007.

「한시로 형상화된 제주의 역사고적」, 『한문학연구』 제21집, 2008.

「한시로 묘사된 제주의 물산과 민중생활」, 『영주어문』 제16집, 2008.

4) 예컨대 최근 들어 문화재청에서 활성화하려는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작가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가,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대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집약하려는 움직임 등을 들 수 있다.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이러한 측면을 부각한 선구자적 집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덕의 행적은 당시 많은 문인들에 의해 傳
혹은 漢詩로 지어져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혹자는 이백년 전의 변방 아낙의 조그마한 행적을 호들갑스럽게 지금
에 와서 거론하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시
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도 구제하기 힘든 백성들을 餓死의
나라에서 구해내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가 낳은 조선조 변방
여인의 뚜렷한 행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사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
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트랜드로 인식시키는 것은 어쩌면 현대를 사는
문학인의 의무이고 당시 이와 관련한 작품을 남긴 문인들의 뜻을 잇는 명
분이 뚜렷한 일인 것이다.

훗날 제주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가 萬德의 행적을 보고 감탄하여 ‘恩
光衍世’라는 글씨를 써서 양손 김종주에게 전하기도 했던 것이 좋은 선례
가 되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萬德傳」에 대한 연구는 이신복의 연구⁵⁾를 필두로 제주 현
지에서 김태능에 의해 전반적인 고찰⁶⁾이 이루어졌고 김준형이 그 뒤를
이어 자세한 자료 분석을 하였고 정창권은 콘텐츠화 작업을 하였다.⁷⁾ 진
재교에 의해 당시 분위기를 살려 만덕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말로 형상
화되었다⁸⁾. 이후 안대회는 만덕전의 주요한 국면들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
하였다.⁹⁾ 지금까지 그녀의 행적을 밝혀 세상에 드러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 萬德 關聯 作品의 創作背景

한두 해 전 새로운 화폐 도안을 만들 때 제주도에서는 金萬德(1739~

5)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단국대학교, 1994.

6)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2000.

7)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8) 진재교, 「만덕전」, 「조선후기인물전」, 현암사, 2005.

9) 안대회, 「끓어죽지마라. 만덕이 있다」, 「한겨레21」 제721호, 2008.

1812)이라는 18세기 후반의 여성을 낳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제주 출신에다 미천한 신분으로 장사를 통해 거부가 되고 그 재산을 털어 빈민을 구제한 의로운 행적이 제주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로 만덕을 꼽는 데는 이견을 내놓기가 어렵다.

미천한 신분으로서 이렇게 큰 인물로 추앙받는 근거는 설득력을 지닐 만큼 충분하다. 행적이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에까지 등장하고 정조와 왕비 그리고 당대의 정승인 채제공을 비롯한 수많은 명사들이 그를 만나보고 시와 산문을 써서 그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적은 1790년대 후반에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사건이었다. 변방 여성이 이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아주 드물다. 『秋齋紀異』에 萬德의 행적이 담긴 것은 자연스럽다.

이백여 년이 지난 지금 제주에는 그를 기리는 사업회가 결성돼 활동 중이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글과 책이 여러 종 출간됐다. 사대부 여성이나 일반 여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인물 형상으로서 萬德의 이미지는 지금도 생생 중이다.

이제까지 남아 전하는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당시 조정에서 萬德의 일을 사회를 개혁하고 바로잡아 개도하는 방편이라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채제공을 필두로 한 남인들이 앞장서서 주도하였다. 그것은 정조와 채제공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이제까지 萬德에 대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을 작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1>

漢詩	傳
李家煥 朴齊家 丁若鏞 趙秀三 紅桃(기생) 등	蔡濟恭 李載采 洪義俊 李義發 金熙洛 劉在建 沈魯崇 등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萬德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많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傳을 지어 그녀의 행적을 세상에 알리려하고 있다. 이것은 傳이 가지는 문체적 특징에 기인하고 체제공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十年獨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던 그는 이민구와 허목의 문풍을 이었으며 다산에게로 이어진다. 이러한 남인 문학의 맥을 이은 변암의 「萬德傳」은 당시 남인들에게 지령처럼 여겨져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萬德의 행적이 의협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로승의 작품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萬德이 일으킨 떠들썩한 소동을 지켜보면서 찬양 일색의 남인들의 작품과는 달리 萬德이라면 침을 뱉는 제주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제주 목사는 沈樂洙(1739~?)였는데 그는 조정에 기근을 구할 구휼미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 일의 전말을 조정에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沈魯崇은 그의 아들이고 1794년 아버지를 뵈러 제주에 가 있던 몇 달 동안 주민들로부터 萬德의 사연을 자세히 들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萬德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남자의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마저 빼앗아서 그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는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육지에서 온 장사꾼들 가운데 萬德의 탓으로 패가망신하는 이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萬德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음식을 구걸하는 형제도 돌보지 않던 萬德이 제주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쳐서 한양에 이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萬德이 호탕한 말을 하여 여러 학사들이 傳을 지어 칭송했다.

심로승이 전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萬德의 행실과는 전혀 판판이다. 심로승은 소문과 실상이 서로 어긋난 사례로 萬德의 일을 들었다. 심로승은 傳을 지어 萬德을 칭송한 체제공과 같은 사람들이 萬德에게 기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싶었다. 심로승은 萬德이 한창 행세할 때 제주에

서 4개월을 지내면서 소문을 들었으므로 서울에서 萬德의 말만 듣고 판단한 다른 사람보다는 실상에 가깝게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르면 어쨌든 萬德이 구홀미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萬德의 전모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한 번의 선행으로 萬德은 많은 것을 얻었다. 개처럼 벌여 정승처럼 쓴다는 평이 그에 합당하다. 적어도 심로승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다.

과연 심로승의 전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어느 쪽 말이 진실에 가까울까?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체제공과 이재채 정약용을 비롯해 萬德을 높이 평가한 사대부가 대체로 남인 계열이라면 심로승은 노론에 속한다. 그리고 당대의 문장가이다. 서로 다른 평가에는 당파적 입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당파적 입장 차이는 조선조 내내 조정을 뒤흔들고 결과적으로 민심의 옳은 향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창작된 판연히 다른 두 작품이 있게 되었다.

3. 萬德과 關聯된 作品

萬德의 행적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들은 <표1>에서 드러나듯이 크게 傳과 漢詩로 나눌 수 있다. 傳과 漢詩는 성격이 매우 다른 문체이다. 주지하듯이 傳은 『史記』 열전 『三國史記』 열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인물의 주요한 국면을 집중적으로 포착하여 그 인물이 가지는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당한 문체이다. 그러나 漢詩는 장편 서사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인의 독특한 감흥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적절하게 쓰이는 문체이다. 그런데 萬德에 관련한 작품들은 傳으로도 기록되었지만 조금 엉뚱하게도 漢詩로 창작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문체적 특징에 관계없이 萬德과 관련된 기록들을 傳으로 된 것과 漢詩로 된 작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傳으로 된 作品

앞서 언급하였듯이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傳의 문체를 빌려서 창작되었다. 이것은 傳이 가지는 문체적 특징에 기인한다.

傳은 일반적으로 입전 대상자의 일생의 행적 가운데서 작가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설은 이와 달리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으려한다. 그런데 「萬德傳」은 傳이면서도 萬德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작품 속에 들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구조는 소설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傳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하였다고 하겠다.

진재교는 조선후기 인물전의 몇 가지 특징을 밝히면서 첫 번째로 '조선후기 사대부 문인 작자는 물론 여항의 작자들까지 하층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주요 행적에 주목하여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포착한 것은 조선후기 傳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조선후기 인물전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는 萬德에 관한 여러 문인들의 傳 작품의 내용을 체재공의 「萬德傳」을 가지고 네 단락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만덕은 성이 김이고 제주도 양민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생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만덕이 성장하자 관청에서 기생의 문서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만덕이 비록 미천한 기생에 종사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만덕이 스무 살 무렵 관청에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자 관청에서 그 처지를 가엽게 여겨 기생의 문서에서 이름을 빼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만덕은 양민의 신분이 되었으나 탐라의 남정네를 촌스럽게 여겨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만덕은 돈을 버는 재주를 가졌다. 특히 물

10) 진재교, 「조선후기 전에서 찾은 주체적 인간」,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가의 변동을 잘 알아 적절한 시기에 물품을 사고팔았다. 그녀는 수십 년 뒤 이름이 날 정도로 돈을 모았다.¹¹⁾

도입부분으로 萬德이 성장과정과 신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자수성가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만덕의 성씨가 김씨이며 그녀가 기생인가하는 대목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추정은 어쩔지 모르겠다.

당시 변방 중에서도 최 변방인 제주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을 옳게 유지하고 명분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다. 자연재해와 탐관오리의 수탈로 대표되는 인재 속에서 연명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잠녀들의 매복의 고통을 노래한 「潛女說」¹²⁾의 내용 중에 '우리가 전복을 캐는 것은 우리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저 서슬이 파란 관리들의 수탈에 호응해야하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프다고 기후가 좋지 않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크게는 우리 가족 곧 자식들을 관비로 빼앗길 수 있다'라고 했던 하소연을 기억해본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신분을 가지고 무슨 성씨를 가지고 사는가의 문제는 사치일 뿐이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때로는 관청에서 구걸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지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매달려야하는 변방의 어려운 상황이 잘 묘사된 「濟州乞者歌」¹³⁾에서처럼 변방의 미미한 백성들은 최소한의 자신을 지키는데 몰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덕 역시 처음에는 재물에 집착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백

11) 채제공, 「번암집」, 「만덕전」.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庸奴 耽羅丈夫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12) 김춘택, 「북헌집」권13, 「囚海錄」.

13) 신광수, 「석북집」, 권7.

성들이 사는 모습이 자신의 어릴 적 삶 속에 클로즈업 되어 측은지심이 자연스런 발로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정조 19년 을묘 년(1795) 제주도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계속 굶어 죽었다. 그러자 정조는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백성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득한 남해 바다 팔백리 길을 돛단배가 벼들의 복처럼 자주 왕래하더라도 제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만덕은 많은 돈을 내어 여러 고을의 뱃사공들에게 육지의 쌀을 사와서 제때에 제주도로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만덕은 사가지고 온 십분의 일의 쌀로 자신의 친척을 구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다 실어다 바치니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관청에서 굶주린 정도에 따라 백성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남녀 모두 나와서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다.’라고 하면서 만덕의 은혜를 칭찬하였다. 관청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끝나자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한 만덕의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정조 임금께서 매우 기특하게 여겨 문서를 내렸다. ‘만덕의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도록 하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어명을 알려주며 물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들어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 만 이천 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당시 나라의 법으로 제주도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 목사가 만덕의 소원을 아뢰니 정조 임금이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했다. 또 관청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말을 제공하고 각 여관에서 교대로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14)

「萬德傳」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목이다. 어렵게 모은 재물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당시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살린 사람은 나라님도 아니

14)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船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濤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萬德捐千金買米 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以上諭諭之曰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觀萬二千峯 死無恨矣 蓋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舖馬遞供饋

고 조정 대신도 아닌 더구나 사내도 아닌 일개 미미한 변방의 아낙이다'라는 경악에 가까운 추앙을 받았던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로로 상경하여 중전과 빈궁을 만나 뵈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서 더 이상의 재론이 필요치 않다. 다만 당시 제주의 여자들이 出陸은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주요한 세수원인 잠녀들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공물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남자들조차도 出陸이 어려웠고 다만 제한적으로 목사가 허락한 인원들만 출입하며 장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지리적 격절성에 따른 것이고 혹은 일부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의 불순한 행적이 밖으로 드러나길 꺼렸던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조선조 동안 제주에는 민심을 달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탐라별시가 꾸준히 시행되었다. 따라서 급제하고 상경하여 관리로 뽑힌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 중에는 서울에 눌러 살며 일가를 이룬 경우도 있겠지만 제주가 가지는 지리적 여건이 부모 형제와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향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 제공되는 미관말직에 만족하여 생을 마친 경우도 많았는데 이 모두가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이해된다.

예컨대 청음 김상헌이 17세기 초 제주 안무어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제주까지 인도해 줄 사공들이 '제주만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물으로 나온 기회에 육지의 물산을 무역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살기가 막막하다는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며칠 장사할 말미를 주었다는 사실'¹⁵⁾에서 또 다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5) 김상헌, 『남사록』, 8월 13일.

만덕은 돛단배 하나로 구름 낀 아득한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1796) 가을에 서울에 들어왔다. 한두 번 나를 만났는데 나는 만덕을 만나본 사실을 글로 써서 임금께 아뢰었다. 정조가 선해청에 명하여 달마다 식량을 주게 하고 며칠 후에는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여 여러 의녀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관례에 따라 만덕이 중전께서 거처하시는 궁궐에 나아가 중전과 빈궁께 문안을 드릴 적에 빈궁께서 궁녀를 보내 말했다.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의롭게 굶주린 수많은 백성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러고는 상을 후하게 내렸다. 반년을 지낸 뒤 정조 정사년(1797) 늦은봄에 만덕은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만폭동 중향성 등의 기이한 경치를 차례로 구경하였다. 금부처를 보면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공양에 정성을 다했다. 제주도에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덕은 선여덟의 나이에 절집과 불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안문령을 넘고 유점사를 거쳐 고성으로 내려가서 삼일포에서 뱃놀이를 하고 통천의 총석정에도 올랐다. 천하의 좋은 경치를 다 본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며칠을 머문 뒤 내전에 나아가 고향 제주에 돌아가겠다고 하니 중전과 빈궁이 전처럼 상을 내려 주었다. 이때 만덕의 이름이 서울에 가득하여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한번만이라도 만덕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¹⁶⁾

이제 이야기는 정점에 도달한다. 심각했던 제주의 기근을 사재를 털어 구제하였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그에게 여러 가지 포상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고 대궐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오르고 싶다는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차례차례 절경을 둘러보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당시에 제주에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불행한 역사이기는 하나 고려조

16) 萬德一帆雲海萬頃 以丙辰秋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月給糧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詣內閣門 問安殿宮 各以女侍 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 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誠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踰鴈門嶺 由楡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告以歸 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無不願一見萬德面

삼별초의 최후 집결지라는 점과 오랜 세월 원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불교가 제주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만덕이 살던 시대보다 약 백년쯤 앞서 제주 목사를 지낸 병와 이형상(1653-1733)은 신당 129곳 및 두 곳의 사찰을 일시에 불사르고 천개에 가까운 불상을 바다에 던져버렸으며 무당들을 양민으로 환속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시 제주의 유교적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긍정론이 있지만 당시 무당들이 그를 주문으로 저주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편협성을 드러내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해하면 당시 제주에는 여러 가지 민간신앙과 외세의 영향에 따른 조금 변형되었으리라고 양보하더라도 불교가 엄연히 존재하였다.

주지하듯이 당시 제주민이 불확실한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무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민의 일상에서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적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시기이지만 추사 김정희의 경우처럼 제주를 오가는 관리들조차도 화북포의 해신사에서 무사귀환을 빌었던 사실에서 당시 제주에는 여러 가지 민간신앙과 사찰이 존재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변수로 옳은 불교의 교리가 전파되지 못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보다 훨씬 앞서 제주를 다녀간 백호 임제(1549-1587)가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에 묵으면서 시를 지었다는 사실에 비추면 더욱 믿기 어렵다. 혹시 금부처를 보면 정성을 다하는 만덕의 모습이 독실한 몸에 배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덕이 떠나려고 하직인사를 하면서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살아 생전에 다시 정승님의 얼굴을 뵈 수 없겠군요.” 이윽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자 나는 말했다. “옛날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는 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여겼네. 세상에서 우리나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고 금강산을 봉래산이라 하지 자네는 제주에서 성장하여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번엔 금강산을 두루 답사하였으니 삼신산 중 두 곳을 유람한 셈이

네. 천하의 수많은 남자조차도 이렇게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왜 마음 약한 아녀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가.” 그러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만덕전」을 짓고는 웃으면서 주었다.¹⁷⁾

어느새 얘기는 결말에 도달한다. 萬德은 서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증전과 빈궁을 뵈고 여러 사대부들과도 대면한다. 이후 소원대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탐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증전과 빈궁을 뵈고 하직인사를 올리고서 번암과 헤어지면서 「萬德傳」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국면은 만덕이 번암과 헤어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여인의 이별의 눈물이야 별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제주 여인의 눈물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구석이 있다. 제주의 여인들은 여러 가지 변방 여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예컨대 제주의 기이한 민풍을 보여주는 「迎郎曲」와 「送郎曲」¹⁸⁾에서처럼 다른 지역 여인들이 겪기 힘든 슬픔도 겪어야 했다.

이미 얘기하였듯이 제주 민의 바다에 기댄 삶은 많은 과부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얼마간의 무리들은 제주에 교대 근무로 들어오는 병사를 낭군으로 맞아들여 반년 남짓 지내다가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색다른 제주 여인의 슬픔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만덕도 홀로 소원풀이를 위해서 객지에서 일 년여를 보내는 동안 늘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번암이었다. 막상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어찌면 「送郎曲」의 주인공과 같은 막막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무튼 일 년여 동안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제주로 무사히 돌아왔다.

17) 萬德臨行 辭蔡相國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皆稱海外有三神山 世言我國之漢挈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登漢挈 剝白鹿潭水 今又踏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包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 於是敘其事 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

18) 임제, 『南冥小乘』, 2월 16일.

이후 萬德은 제주로 돌아가 살다가 1812년에 사망했다. 돌아간 뒤 제주에서 생활한 사연은 일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다. 묘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여성 義俠 萬德의 선행과 왕명을 받은 서울 금강산 여행은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전설이 되었다. 洪義俊 李義發 金熙洛 劉在建 등이 그의 삶을 조명하는 글을 지었다.

3.2 漢詩로 된 作品

주지하듯이 당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혹독하게 제한되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저 변방의 그야말로 미미한 여인이 饑民을 구휼하고 그 공로로 상경하여 중전과 빈궁을 뵈고 금강산까지 구경하였다는 것은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奇話들이 만들어지고 당시 사대부들이 주축이 되어 시집이 만들어졌다.

다산 정약용도 이 시권에 발문을 써주었다. 그 글에서 다산은 萬德에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 곧 三奇四稀가 있다고 말했다. 기생이 과부로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회사한 것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여자로서 겹눈동자를 가졌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말을 타고 왕의 부름을 받았으며 기생으로서 중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했다.¹⁹⁾ 萬德이 누린 호사가 당시로서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보여 준다. 이 외에도 많은 당시 문인들이 이러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분위기에 동참하였다.

판서 이가환은 서문과 함께 시를 지었다.

19) 정약용, 「여유당전서」,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畿 萬德捐振之 詢其願 金剛山也 有聖旨令如願 丙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 越明年春 萬德回自金剛將還其鄉 左丞相蔡公爲立小傳 敘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也 高貨樂施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女而重瞳子 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 四稀也 嗟以一眇小女子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

萬德瀛洲之奇女	만덕은 제주도의 기이한 여인!
六十顏如四十許	나이는 예순이건만 얼굴은 마흔 살.
千金糶米救黔首	천금 같은 쌀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 구하고
一航浮海朝紫塞	배 타고 바다 건너와 임금님을 뵈었네.
但願一見金剛山	소원은 한 가지로 금강산을 보는 것
山在東北烟霧間	금강산은 동북쪽 멀리 안개 속에 쌓여 있네.
至尊卿肯賜飛驒	성상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는 듯한 역말을 내려주시니
千里光輝動江關	천리 길 빛나는 영광이 곳곳에 넘쳐흘렀네.
登高望遠壯心目	높은 봉에 올라 멀리 조망하여 눈과 마음 확 트이게 하더니
飄然揮手還海曲	표연히 손을 흔들며 섬으로 돌아가네.
耽羅遠自高夫良	담라는 아득한 옛날 고씨 부씨 양씨부터 비롯했는데
女子今始觀上國	서울을 구경한 여자는 만덕이 처음이리라.
來如雷喧逝鵝舉	우레처럼 떠들썩하게 와서는 고니처럼 홀연히 떠나고
長留高風灑寰	높은 기상을 길이 남겨 천하에 흩뿌렸네. ²⁰⁾

작자는 작품 서문에서 독특하게도 萬德을 과부로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분분한 대목이다. 만덕에 대한 작품의 시초가 되는 체제공의 작품에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이후 이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되었다. 따라서 작자의 그녀가 과부라는 논리는 다소 주관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리고 큰 기아에 쌀을 사서 백성을 구휼하고 이 사실이 보고되어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물었는데 다른 것이 없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자 내의원 행수로 임명하고 역말을 타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²¹⁾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본격적인 작품 속에서 작자는 세세한 내용을 은근히 담았으면서도 별도의 서문을 두어 행적을 소상히 밝히려 했던 것은 한시의 문체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세심함에서 비롯되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한시라기보

20) 이가환, 『금대시문초』 상, 고시, 「送萬德還耽羅」.

21) 萬德 耽羅寡婦 乙卯大饑 糶米賑飢 州牧以聞 至尊動色 問萬德所欲 萬德無所欲 欲見金剛山 遂錄名女醫 賜以驛遞 俾成其願

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만덕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물론 작자의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창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아마 당시 많은 문인들이 萬德과 관련된 작품을 지을 때 대부분 전의 형식을 빌려 조금 더 소상히 행적을 밝히려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주관적 입장을 살리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작자는 변방 여인의 기이한 행적이 조선후기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위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매우 적당한 소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傳보다는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한시라는 문체가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기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고니처럼 홀연히 떠나 높은 기상을 길이 남겼다’고 고상하고 신비롭게 표현하였다. 작자는 아마도 신선한 충격이었던 이 사건이 본인뿐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숭고한 일로 추앙되기를 의도했었다는 기분이다.

마치 기생이었던 紅桃가 어찌면 스무 살에 妓籍에서 어렵게 빠져나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굶주림을 아녀자의 몸으로 과감히 사재를 털어 수행한 변방 여인의 행적에 감동하여 약간은 동질감 속에 자랑스러움을 솔직한 심정으로 “행수 의녀는 탐라의 기생이라/ 만 리 길 높은 파도도 겁내지 않네/ 이제 또 금강산으로 구경 길 떠나며/ 꽃 같은 이름 교방에 남기네.(女醫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教坊中)”라고 드러냈던 부분과 일정부분 맥이 닿아 있다.

조수삼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문과 함께 시를 남겼다.

懷淸臺築乙那鄉	청대에 대한 생각 올라의 고을에 가득하여
積粟山高馬谷量	산처럼 쌓인 곡식 말을 키우는 마을 살릴 곡식이다.
賦汝重瞳眞不負	헤아려보니 너의 겹눈동자 참으로 저버릴 수 없으니
朝瞻玉階暮金剛	아침에 대궐에서 보고 저물어 금강산을 노니네. ²²⁾

22) 조수삼, 「추재집」, 「만덕」.

조수삼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칠언절구에 그쳤지만 함축적으로 萬德의 행적을 드러내려고 애썼다. 작자는 서문에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萬德이 서울에 오게 된 경과와 그녀의 소원으로 대결을 둘러보고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내의원 행수로 상경하여 금강산을 구경하였다고 하였다.²³⁾

본격적인 작품에서 작자는 칠언절구라는 형식의 한계를 그녀가 기민을 구한 행적을 부각시켜 극복하려 하였다. 특히 작자는 그녀를 의협이 강한 모습으로 형상화하려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소문을 그대로 좇아 겹눈동자를 지녔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서울에서는 萬德의 눈 한쪽이 겹눈동자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겹눈동자는 한 눈에 눈동자가 두 개 들어간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인인 중국 고대의 순임금과 진한 교체기의 항우가 있다. 박제가와 조수삼 등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그가 겹눈동자를 지닌 특별한 용모임을 부각시켰다. 박제는 전생에 부처의 마음과 신선의 풍골이 있어서 萬德이 그런 특이한 상을 지녔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 소문이 크게 확산되자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다산이 사실을 확인해보려고 萬德을 자기 집에 불렀다. 확인해 밝힌 뒤에 「겹눈동자의 변증」이란 한 편의 짧은 글을 썼다. 이 작품에서 다산은 만덕이 물건을 두 개로 보지 않고 가까이서 그의 눈을 보니 黑白의 睛瞳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겹눈동자란 헛소문임을 밝혔다.

하지만 萬德 자신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다산은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횡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虛誕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바보가 된다고 개탄했다.²⁴⁾ 이러한 뜬소문이 떠돈 것은 萬德이 일으킨 소동이 얼마나

23) 萬德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隻眼重瞳 正宗壬子州大歎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萬德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陸 一見金剛 遂命騎駟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24) 정약용, 「여유당전서」,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賑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汝目重瞳 有之乎 曰然 曰凡宮室樓臺 草木人物 於汝視之皆成兩乎 曰不然 曰然則汝非重瞳矣 遍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

켰는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서울에 머물 때 萬德은 여러 일화를 남겼다. 李載采의 「萬德傳」에는 그가 서울에 머물 때의 일화를 기록했다. 서울의 惡少輩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과부라고 하여 萬德에게 바짝 접근했다. 그러자 萬德은 “내 나이 선이 넘었다. 저들은 내 얼굴을 곱게 봐서가 아니라 내 재물이 탐나서 저런다. 굶주린 자를 구할 여유도 없는데 어느 겨를에 저런 탕자를 살찌우라?”라며 거절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남을 등치려는 이들이 있는데 萬德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의협의 풍모가 넘쳐난다.

아무튼 그녀가 남긴 일화 속에서 그녀가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당시에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장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퍼진 것이 아니고 역으로 지역에서 서울로 번져간 조선조 보기 드문 일이었다는 것이 의미를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자 열녀 충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 변방의 여인이 당시 현실적인 한계를 당당히 극복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한 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사실로 보인다.

4. 萬德 關聯 作品의 意義

주지하듯이 「萬德傳」이 지어진 시기는 노론별열 층의 장기 집권 폐단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암울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여 민생안정과 정권을 보장받으려 했던 정조는 번암을 重用하여 남인들의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照爲小樓臺 草木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籍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예컨대 문체반정을 통해 노론의 세력을 견제하려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홍국영의 일로 급진 개혁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정조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한 어설픈 개혁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에는 대대적인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수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여인의 몸으로 사제를 털어 구호미가 제주로 들어오기 전 열흘 동안 술을 걸어 백성들의 餓死만은 면하게 한 변방 여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은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인 이슈에 목말라 있던 정조에게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었다. 곧 실정의 책임을 당시 집권층인 노론에게 엄중하게 물어서 그들의 세력을 철저히 견제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들과 대항하여 왕권의 항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마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남인을 중용할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또한 남인의 입장에서 정조를 도와 당세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일이었다.

즉각 정조는 萬德을 대궐로 초청해 금강산을 구경시켜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정치개혁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 중 하나가 대신들에게 萬德의 사건을 주제로 글을 짓는 월과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傳 漢詩 雜著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변암을 위시한 남인들의 문집 속에 제한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첫째 당시 조정대신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제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당시 대신들에게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작품을 지었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남인들에게 편향되어 있는 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결국 노론별열 층은 지엄한 왕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어놓고 문집을 편수할 때 빼버렸던지 없애버렸을 것이다. 다만 남인들은 당세를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왕명에 부응하였다. 아마 당시 남인들은 이것만이 이 혼란한 시기를 사는 방편이 되고 지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유행처럼 萬德에 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쏟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萬德傳」이 가지는 가치를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이야기의 주제 주인공이 모두 제주라는 점은 매우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우리 문학인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점에 과단히 부응할 수 있는 소재임에 틀림이 없다.

5. 맺음말

조선후기 제주의 흉악한 饑饉은 탐라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제주 목사의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구제를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변방의 외딴섬까지 그러한 은택이 미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따라서 그 일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제주의 당당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난관에 맞서 기민을 구제하였고 그 공로로 대궐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보려했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일은 당시에 많은 과장을 불러일으켰고 체제공을 필두로 여러 문인들이 傳과 漢詩를 지어 위로하였다. 이러한 일은 주로 남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어쨌든 당시 문인들의 지식인으로써의 역할인식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물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창작활동은 당시 남인들을 중심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려는 운동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이후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우리들은 이제까지 문학의 역량을 중앙중심의 제한적인 틀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이백년 전 굶주린 백성을 구하였던 이 숭고한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실학을 주도했던 정약용 박제가 조수삼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이 일을 중요시하여 별개의 작품을 남기려 했었던 것에 비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요즘 들어 조금 관심을 기울리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다. 이것은 문학이 현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현실에 이바지해야한다는 효용성을 등한시한 결과이다.

중앙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유산들 역시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단서인 것이다.

● 핵심어: 만덕, 제주, 지역문학, 당파적 이해관계

<참고 문헌>

- 임 제, 「南冥小乘」.
김상헌, 「남사록」.
김춘택, 「囚海錄」, 「북헌집」.
채제공, 「번암집」.
신광수, 「耽羅錄」, 「석북집」.
정약용, 「여유당전서」.
이가환, 「금대시문초」.
조수삼, 「추재집」.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단국대학교, 1994, 633쪽.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2000.
진재교, 「조선후기인물전」, 현암사, 2005.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안대회, 「굶어죽지마라. 만덕이 있다.」, 「한겨레21」 제721호, 2008.
줄 고,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소고」, 「영주어문」 제14집, 2007,
53~79쪽.
_____, 「한시로 형상화된 제주의 역사고적」, 「한문학연구」 제21집, 2008,
35~71쪽.
_____, 「한시로 묘사된 제주의 물산과 민중생활」, 「영주어문」 제16집, 2008,
107~130쪽.

<Abstract>

The Regional Literary Values of Chinese Poems Related to
"Mandeokjeon"

Bu Yeong-geun

It is very interesting and notable that Jae-gong Chae, the chief minister who assisted King Jeongjo in the late era of Joseon dynasty, created a novel titled "Mandeokjeon" on the basis of a regional narrative about Mandeok, a heroine who contributed to saving Jeju islanders from famine even in the capacity of woman under confusing circumstances in the late era of Joseon dynasty, so that this novel has been a model even for the literature of follow-up generations. And a fact that Jeju Island was the background of this work may imply that it could be useful as a good substance of regional literature. In particular, it is wonderful that a local woman played a major role in such heroic story, although contemporary high officials tended to view and diagnose her deed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artisan coloring. Ironically, this heroic real story indicates that regional matter was re-spotlighted as a social issue in the center of national power. On the other hand, it becomes a good story helpful for improving the standing of Jeju Island and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circumstances.

Therefore, this story is valuable as a substance for researching in regional literatures, and it is possible the duty of literary people that is to make positive use of this substance, create a new story and thereby tell it to our contemporary people.

This study summed up and narrated Chinese traditional poems re-

lated to Mandeok along with “Mandeokjeon”, and thereby discussed the backgrounds of their literary creation.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me to a conclusion that “Mandeokjeon” and related Chinese poems are so valuable works as regional literatures.

• Key words: Mandeok, Jeju, regional literature, partisan interests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